

코로나 장기화에...재즈 '블루문'·인디 '브이홀', 아쉬운 폐관

블루문, 지난달 14일 마지막 공연 끝으로 폐업

마지막 공연에 재즈계 대표하는 뮤지션들 총출동

무브홀·브이홀 등 상징적인 공연장들도 문닫아

“프로포즈를 ‘원스 인 어 블루문’에서 했다는 커플이 기억이 남아요. 매년 결혼기념일에 이곳에 왔다는 커플이죠. (사라지니까) 너무 아쉽다는 이야기를 듣는데, 몽롱하더라고요.”

수화기 너머로 들리는 청담동 재즈클럽 ‘원스 인 어 블루문’의 창업자인 임재홍 사장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아쉬움이 짙게 묻어 나왔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와 경제 불황 등이 겹치면서, 소수 음악장르 애호가들의 커뮤니티를 담당 했던 티썬대감 공연장들이 사라져가고 있다.

22년간 청담동을 지켰던 원스 인 어 블루문은 지난달 14일 마지막 공연을 끝으로 폐업했다.

1998년 문을 연 이곳은 2000년대 초중반에 전성기를 누렸다.

유명 재즈 뮤지션들의 공연 장소이자 드라마 ‘파리의 연인’(2004), ‘내 이름은 김삼순’(2005) 등의 촬영 장소로 유명했다.

거스 히딩크 전 한국축구 국가 대표팀 감독이 단골로, 2002년 한일 월드컵 당시 한국 경

기를 마치고 그가 클럽으로 달려온 일화는 여전히 회자된다.

“원스 인 어 블루문’이 폐업을 한 가장 큰 이유는 건물주가 건물을 매각했기 때문이다.”

해당 건물은 헐리고, 새 건물이 들어선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영업 자체가 쉽지 않아 금·토 공연만 해왔지만, 임 사장은 “코로나19는 누구나 다 겪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코로나19가 한없이 길어지면서 “새로운 터를 찾는 자체가 불가능”이었다. “새로운 곳에서 새롭게 시작하곤 마음은 간절한데, 현실이 녹록지 않아요. 인테리어, 집기, 비품, 설비, 그릇 등을 다 정리해서 맨손으로 시작을 해야 하는데 제 나이드 어느새 예산이 넘었네요.”

다만 파란 형광빛으로 글자가 빛나는 ‘once in a blue moon’ 네온사인은 때와 소중하게 보관하고 있다.

원스 인 어 블루문 마지막 공연에는 이정식, 웅산, 김현미, 김준 등 재즈계를 대표하는 뮤지션들이 총출동해 아쉬움을 나눴다.

그런데 이곳은 정식 공연뿐만 아니라 재즈

뮤지션들의 음악을 소개하는 쇼케이스 장소로도 각광 받았다.

원스 인 어 블루문만큼, 음향 시설이 잘 갖춰진 곳이 없었기 때문이다.

쇼케이스를 하면, 각계각층에서 재즈 애호가들이 몰려들어 응원하며 자연스레 커뮤니티도 형성됐다.

임 사장은 “가장 아쉬운 부분은 재즈 뮤지션들의 활동 공간에 더 제약이 생길 거 같다”며 “‘원스 인 어 블루문’에 쌓인 추억들이 가장 아쉽다”고 했다.

재즈 팬들에게 원스 인 어 블루문의 폐업 소식만큼, 흥대 앞 인디 팬들에게 아쉬운 소식이 있었다.

흥대입구 역을 지켜오던 라이브 공연장 브이(V)홀이 지난달 9일 밤 아예 폐업했다. 이곳은 지난 9월부터 영업을 중단해왔다.

대다수가 스탠딩 공연장인 흥대 앞 라이브 홀들에게 코로나19는 유독 혹독했다. 무브홀, 브이홀 등 상징적인 공연장들이 줄줄이 문을 닫고 있다.

브이홀은 의미가 큰 공간이다. ‘마왕’ 신해철이 지난 2007년 개설한 게스트 시어터가 모태다. 당시 흥대 앞 라이브 공연장으로는 최대 규모인 500~600석(스탠딩 기준)으로 업계가 흥분에 휩싸였다. 이후 후원사의 브랜드 등을 브이홀 앞에 붙여 운영하기도 했다.

사라 바렐리스, 디스트로이어, 맥 드마르코 등 유명 해외 뮤지션들이 이곳에서 내한공연을 했다.



다양한 공연 연출로 유명한 이승환이 정기적으로 소극장 공연을 열었다.

특히 지난 2015년에는 서태지가 자신의 첫 흥대 앞 공연을 이곳에서 선보이기도 했다.

브이홀 운영을 맡아온 브이엔터테인먼트의 주성민 대표 프로듀서는 “브이홀은 큰 규모가 강점이라, 인디뿐만 아니라 다양한 장르의 뮤지션들이 선호했다”고 전했다.

흥대 앞 인디 신에서는 코로나19가 타격을 준 것은 어쩔 수 없다고 여기더라도, 정부의 지원 방식에는 일부 아쉬움을 표한다.

공연장 생태계를 유지하기 위한, 민간 자영업자를 살리는 방식에 대한 고민이 부족했다는 것이다.

한 인디 관계자는 “인디 가수들의 공연을 지원하겠다며 기존 공연장 대신, 세금으로 새로운 공연장을 짓는 탁상 행정 방식으로는 인디계를 살릴 수 없다”고 토로했다.

인디 레이블도 꾸리고 있는 주 대표는 “인디 업계에 응원하고 도움을 줘서 같이 생존할 수 있는 방식을 고민 중”이라고 전했다.

아이돌Live, 언택트 콘서트 ‘MIC ON 2’ 내일 개최...AB6IX 등 출연

아이돌Live 앱에서 팬 질문, 부캐 투표 등 사전 이벤트 진행

LG유플러스는 아이돌 ‘에이비식스(AB6IX)’, ‘씨아이엑스(CIX)’, 가수 정세운이 출연하는 언택트 미니 콘서트 MIC ON(마이온) 2를 19일 오후 7시 아이돌Live 앱에서 독점 생중계한다고 밝혔다.

MIC ON(마이온)은 아티스트가 팬을 위한 무대를 만들며 ‘나를 위한 콘서트’, ‘팬에게 헌정하는 콘서트’라는 의미를 담았다.

지난 11월 21일 첫 회가 성황리에 진행됐고 19일 두번째 무대가 펼쳐진다.

MIC ON 2에는 그룹 에이비식스(AB6IX), 씨아이엑스(CIX), 가수 정세운이 출연한다.

이번 공연 역시 팬들과 함께 만들어 간다는 의미를 담아 17일까지 아이돌Live 앱에서 팬들이 아티스트에게 궁금한 것을 질문하고, ‘부캐’를 투표해서 정하는 등의 사전 이벤트를 진행한다.

공연 중에도 팬과 아티스트의 소통의 시간이 마련된다.

진행은 방송인 하지영이 맡는다.

에이비식스(AB6IX)는 지난달 2일 세 번째 미니앨범 ‘살루트(SALUTE)’를 발매하고 동명의 타이틀곡 ‘살루트’로 활발한 활동을 펼쳤다.

특히 이번 앨범에 전용, 김동현, 박우진, 이대휘 등 멤버 전원의 자작곡을 수록해 실력파 아이돌로 존재감을 드러냈다.

씨아이엑스(CIX)는 지난 10월 세 번째 미니앨범 ‘안녕, 낯선시간’(HELLO) Chapter 3. Hello, Strange Time)을 발매하고 타이틀곡 ‘정글’로 활동했다.

이 앨범으로 발매 첫 주, 초동 판매량 자체 최고 기록을 세우는 등 인기 상승세를 알렸다. ‘싱어송라이더’로 통하는 가수 정세운은 최근 음악 활동과 예능 출연을 병행하며 다양한 매력을 알리고 있다.

케이팝 대표 스타들이 함께하는 MIC ON 2는 멤버별 멀티캠(Multicam) 서비스를 제공해 생생한 현장감을 물론 팬들이 보고싶은 무대 영상을 자유자재로 감상할 수 있다.

LG유플러스에서 주최하고 한류 최대 에이전시 ‘와이제이 파트너스(WJ Partners)’에서 주관하는 MIC ON 2는 U+아이돌Live 모바일과 IPTV 앱을 통해 생중계된다.

공연 이후 VOD로도 시청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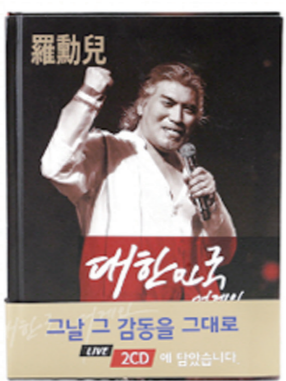
아이돌Live는 이용중인 통신사 관계없이 구글 플레이스토어, 애플 앱스토어, 원스토어 등 앱마켓에서 내려 받아 무료로 이용 가능하다.



다. ‘UHD2’ 또는 ‘UHD3’ 셋톱박스를 이용하는 U+tv 고객은 IPTV용 ‘U+tv 아이돌Live’ 서비스로 TV에서 더 크고 생생하게 감상할 수 있다.

‘테스형!’ 나훈아 추석 공연 열기 그대로...실황 음반 출시

공연 당시 촬영한 146쪽 분량 포토북과 CD·USB가 한 세트 구성될 예정



추석 연휴 신드롬을 일으킨 ‘가랑’ 나훈아의 특집쇼 ‘2020 대한민국 어게인 나훈아’가 라이브 앨범으로 나온다.

17일 소속사 예아라·에소리에 따르면 ‘2020 대한민국 어게인 나훈아’ 실황 음반이 오는 21일 출시된다.

앨범에는 방송 직후 화제가 됐던 ‘테스형!’을 비롯해 ‘내게 애인이 생겼어요’ 등 신곡과 ‘고향여’, ‘청춘을 돌려다오’, ‘무시로’, ‘고장난 벽시계’ 등 기존 히트곡까지 총 30곡이 수록된다.

앨범은 공연 당시 촬영한 146쪽 분량의

포토북과 CD, USB가 한 세트 구성될 예정이다.

윤종민 대표는 “감하고 담담한 가사를 풀어준 나훈아의 명곡과 멘트를 그날 그 감동 그대로 생생히 담았다”며 “잡힐 듯 잡히지 않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 시름하기보다 곧 다가올 건강한 웃음의 세상에서 비대면이 아닌 서로 마주 보고 맑게 노래하고 손뼉 치는 열광의 공연을 기대해 본다”고 전했다.

나훈아는 추석 연휴 KBS 2TV가 방송한 언택트 공연 ‘2020 대한민국 어게인 나훈아’로 전국민적 화제를 모았다.

9월30일 분방송은 29%, 10월3일 스페셜 방송은 18.7%의 높은 시청률을 기록했다.

연말에는 부산·서울·대구 3개 도시에서 공연을 열 계획이었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으로 모두 취소했다.

블랙핑크, 온라인 콘서트 내년 연기

코로나 확산 10인 이상 모임·행사 금지 조치

블랙핑크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거리두기 강화로 온라인 콘서트를 내년으로 늦췄다.

소속사 YG엔터테인먼트는 블랙핑크 온라인 생중계 콘서트 ‘YG 팝 스테이지 - 2020 블랙핑크: 더 쇼’를 이달 27일에서 내년 1월 31일로 연기한다고 17일 밝혔다.

블랙핑크 온라인 콘서트 진행될 예정이던 장소의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최근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보다 강화된 방역수칙을 적용하는 행정명령을 내린 데 따른 조치라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이달 11일부터 28일까지 10인 이상의 모임·행사를 금지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YG는 공연 연기와 관련한 안내 공지를

통해 팬들의 양해를 구하며 “기다려주신 팬 분들을 위해 더 열심히 준비해서 보다 좋은 공연으로 찾아뵙겠다”고 전했다.

블랙핑크(지수·제니·로제·리사)도 이날 SNS 영상 콘텐츠로 팬들에게 아쉬운 마음을 전했다.

블랙핑크 멤버들은 “힘든 시기를 보내고 계신 많은 분들께 조금이나마 위로를 드리고 싶었지만 ‘THE SHOW’와 함께 하는 모든 분들의 건강과 안전한 환경에서 공연을 준비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 이 순간에도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애쓰고 계신 의료진께 정말 감사 드린다. 다가오는 연말, 모두 건강에 유의하시고 내년 ‘THE SHOW’에서 만나자”고 덧붙였다.

‘범인은 바로 너’ 시즌3 유재석·이승기 등 출연

내년 1월22일 공개

넷플릭스는 오리지널 예능 ‘범인은 바로 너!’ 시즌 3를 내년 1월22일 공개한다고 17일 밝혔다.

‘범인은 바로 너!’는 ‘허당’ 탐정들이 모여 사건을 추리하는 포맷으로, 넷플릭스가 최초로 만든 한국 배리어티 프로그램이다.

시즌 3에서는 유재석과 이승기, 이광수, 박민영, 김종민, 세훈, 세정 등이 출연한다.

제작진은 “시즌 3에서는 이광수가 빠졌던 점에 들어있던 비밀이 밝혀지면서 매 회차의 이야기가 하나의 이야기로 모여 거대한 서사를 완성할 것”이라며 “모두를 궁금하게 했던 프로젝트 D에 대한 내막이 과연 무엇일지 사건의 실마리를 쫓아갈 허당 탐정단의 활약을 기대해 달라”고 전했다.



방탄소년단·트와이스 출격...KBS 가요대축제 라인업

방탄소년단, 트와이스가 ‘2020 KBS 가요대축제’에 출연한다.

17일 ‘2020 KBS 가요대축제’ 티저 영상에 따르면 그룹 방탄소년단을 비롯해 트와이스, 세븐틴, NCT, 박진영, 선미, 태민, 풀킴, 김연자, 설운도, 제시, 잭슨이 출연한다.

제작진은 올해 주제를 ‘Connect’로 결정했

다. 코로나19로 인해 모든 것이 뒤바뀐 세상에서 K팝 가수들과 팬들이 만날 수 없는 현 상황을 음악으로 연결하겠다는 의미를 담았다. 주제에 맞게 시공간의 넘어 다양한 매체로 연결된 무대를 선보일 예정이다.

MC로는 동방신기 유노윤호, 아스트로 차은우, 배우 신예은이 발탁됐다.